

지역 매아리



정읍시, 국민참여 지진대피 훈련

정읍시는 16일 오후 2시 지진 대피 훈련을 실시했다. 시청과 시 제2청사, 보건소, 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 등 공공청사를 대상으로 실시된 훈련에는 김용만 시장 권한대행을 비롯 1,000여명의 직원들이 참여했다. 이날 참여자들은 실제 지진 발생 상황을 가정하여 책상 밑과 건물 밖 대피소로 신속히 대피했다. 김 시장 권한대행은 "지진은 더 이상 남의 나라 얘기가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언제든지 심각한 지진 피해가 일어날 수 있다"며 "따라서 만일의 사태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반복적인 실제 훈련과 교육을 통해 대피 요령 등을 몸에 익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읍=김대환기자



정읍시, 내장산 국민여가캠핑장 인기

5월 캠핑의 계절을 맞아 내장산 국민여가캠핑장(이하 내장산 캠핑장)이 전국에서 찾아온 캠핑객들로 북적이고 있다. 16일 정읍시에 따르면 최근 두 달 전부터 주말 예약이 꽉 차는 등 찾는 이들이 부쩍 늘고 있다. 시는 "가족들과 야외에서 직접 준비한 음식으로 만찬을 즐기고, 오손도손 뛰어 놀며 가족애를 싹틔울 수 있는 최적의 캠핑장으로 이름나면서 많은 이들이 찾고 있다"고 밝혔다. 올해 들어 이달 현재까지 예약 건 수는 모두 1,400여건에 달한다. 내장산 캠핑장은 내장산국립공원 초입에 자리하고 있다. 내장산 문화광장 내 3만295여㎡ 규모로 조성된 내장산 캠핑장은 내장산에서 불어오는 시원한 바람과 눈부시게 푸른 잔디가 어우러진 공간이다. 푸른 잔디에서 마음껏 자연을 즐기고 휴식을 취할 수 있어 가족, 연인, 친구 모두에게 안성맞춤이라는 입소문이 나면서 캠핑명소로 손꼽히고 있다. /정읍=김대환기자

“아동수당 신청하세요”

정읍시, 6월 20일부터 신청... 9월 21일 지급  
대한민국 국적 보유 만 0~5세  
2012년 10월 1일 이후 출생아

정부의 '아동수당법 시행'에 따라 정읍시가 6월 20일부터 아동수당 사전 신청을 받는다. 첫 번째 아동수당은 9월 21일 지급된다. 지급 대상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만 0~5세 아동 252만 명이다. 2012년 10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신청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정읍시는 신청 요령 등 세부 사항 홍보에 적극 나서고 있다. 시 관계자는 "많은 시민이 몰려 신청하는데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 제도 시행을 몰라 혜택을 받지 못하는 시민들이 없도록 하기 위해 이를 알리는데 주력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아동수당은 신청하지 않으면 못 받는다. 보호자 혹은 대리인은 부모를 포함한 친족(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이다. 보호자가 없을 경우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이나 아동이 입소한 시설의 종사자가 신청할 수 있다. 아동의 보호자나 대리인은 다음 달 20일부터 아동이 거주하는 지역의 읍면동 주민센터에 아동수당을 신청해야 한다. 북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에 접속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도 있다. 온라인 신청 시엔 부모 모두 공인인증서를 통해 전자서명을 해야 한다. 부모가 아닌 보호자나 대리인은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하다. 이들은 신분증을 지참해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한다. 수당은 아동 1명당 월 10만 원을 지급한다. 매월 25일 신청 당시 제출한 아동 또는 보호자의 계좌로 입금된다.

지급일이 주말이나 공휴일이면 전날 입금된다. 첫 번째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9월은 추석 연휴로 인해 21일 지급된다. 단, 아동수당은 신청하지 않으면 못 받는다. 예를 들어 9월 28일 신청하면 9월분을 받을 수 있지만 10월 1일에 신청하면 9월분을 받을 수 없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다만 신청서의 경우 출생 후 60일 이내에 아동수당을 신청하면 출생한 달부터 소급해 아동수당을 지급한다. 소득과 함께 부당산과 예금 등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소득인정액'이 ▲3인 가구 월 1170만 원 ▲4인 가구 월 1436만 원 ▲5인 가구 월 1702만 원 ▲6인 가구 월 1968만 원을 초과하면 수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녀가 2명 이상이면 둘째부터 1명 당 월 65만 원씩 빼고 부모 소득을 산출한다. 부모 소득이 많아도 자녀가 많다면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 맞벌이 부부라면 부부 소득 합산금액의 최대 25%까지 제외하고 소득을 계산한다. /정읍=김대환기자

“미래 100년 비전 완성할 것”

박우정 고창군수, 재선 도전

박우정 고창군수가 6·13 지방선거 재선에 도전장을 던졌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박우정 군수는 16일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후 군의회 소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창의 지속적인 발전과 더욱 풍요로운 미래 100년을 여는 큰 비전을 완성하기 위해 군수 출마를 선언한다"고 밝혔다. 박 군수는 "인맥을 최대한 활용하고 중앙부처와 국회를 힘 없이 뛰어다니면서 국가예산 확보액을 매년 큰 폭으로 갱신해 왔다"며 "아름답고 청정한 명품 고창건설의 목표에 지역발전과 현안 해결을 위해 호혜로운 군민들에게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전국 최초로 상수도 원격검침시스템을 도입해 스마트 시티 구축을 선도하고 전국 군 단위 최초로 육아종합지원센터를 개관하는 등 선진행정을 구현해냈다"고 강조했다. 또 "부채 380억원 중 300억원을 조기상환하면서도 공공기관 청렴도 전



북 1위, 전국 4위로 3년 연속 우수기관에 선정되는 쾌거를 이루는 등 군정을 이끄는 데 소홀함이 없었다"고 부연했다. 박 군수는 "그 동안 쌓은 역량과 경험을 살려 군민이 골고루 행복한 고창발전을 이룰 책임자라는 확신을 갖고 이번 지방선거 출마를 결심하게 됐다"고 부연했다. 더불어 "역사와 문화·자연이 어우러진 생태문화관광도시, 신명나는 스포츠도시, 활력 넘치는 친환경 농축어업도시, 기업하기 좋은 경제도시, 사람 중심 안전도시, 살고 싶은 복지도시를 건설하겠다"고 피력했다. 박 군수는 "지금 고창은 정부와 소통할 수 있는 힘 있는 지도자가 필요한 때"라며 "열정과 신념으로 고창발전과 안정된 군민 행복시대를 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고창=김영식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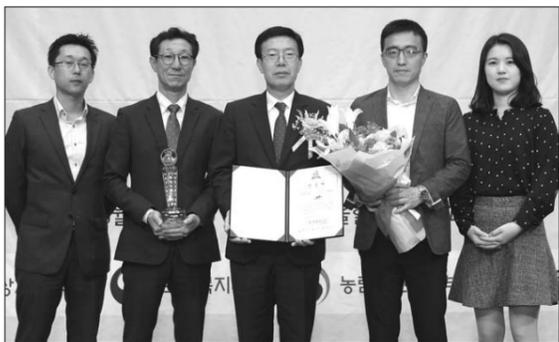
제 5회 2018 소비자에게 신뢰받는 착한 브랜드 대상  
고창군, 도시브랜드 부문 대상 수상

도로교통망 확충·복지체계 등성과 인정

고창군이 16일 서울특별시 중구 소월로에 위치한 밀레니엄 서울힐튼호텔에서 개최된 '제5회 2018 소비자에게 신뢰받는 착한브랜드대상' 도시브랜드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이 상은 동아일보사가 주최하고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농림축산식품부가 후원해 '금융 및 지식 서비스, 가전, 아파트 및 내구재,

의류 및 유통, 통신, 교육, 문화, 식품·프랜차이즈 등 소비재, 공공기관 및 지자체' 분야로 나눠 선정한다. 이를 통해 중장기적 성과를 평가하고 창의적인 혁신과 아이디어 소비자에게 믿음과 사랑을 받는 상품 및 브랜드를 발굴·격려하고 기업의 브랜드 가치 및 경쟁력을 향상시켜 기업 및 공공기관의 가치를 지속적으로 향상시키는 우수사례

를 선정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성장과 국가경제 발전을 기여하기 위해 시상하고 있다. 고창군은 전 지역이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으로 등재된 우수한 자연환경을 바탕으로 찾아오기 쉽고, 와서 머물고 싶은 고창을 만들기 위한 도로 교통망 확충 및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복지체계 구축, 지속가능한 농축어업환경기반 조성, 재난재해로부터 안전한 고창을 만들기 위한 재난예방사업을 꾸준히 추진하여 가장 따뜻하고 인정 넘치는 '한국인의 본향'을 만들어 가고 있는 점을 인정받았다. 특히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한 결과 전년도 청렴도 평가에서 전라북도 1위, 전국 군부 4위를 달성하였고 3년 연속 우수기관에 선정되는 등 투명하고 깨끗한 군정을 펼쳐왔으며, 세계가 인정한 청정 자연환경을 바탕으로 지역에서 재배 및 생산되는 친환경 농수산물의 생산뿐만 아니라, 친환경 체험관광과 연계한 건강한 농수산물을 판매하는 전략을 성공적으로 정착시켜 농업인의 소득증대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고창=김영식기자



고창군 2018 소비자에게 신뢰받는 착한브랜드대상' 도시브랜드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부안군 보건소, 비브리오패혈증균 주의 당부

부안군보건소가 도내 해수에서 비브리오패혈증 균이 첫 분리를 따라 군민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비브리오패혈증은 일반적으로 해수 온도가 18°C 이상 상승하는 5~6월 첫 환자가 발생하여 8~9월에 환자가 집중 발생한다. 이를 위해 군 보건소는 만성 간질환자, 당뇨병, 알콜중독자 등의 고위험군이 비브리오패혈증균에 감염되면 치사율이 50% 내외로 높아 더욱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어패류는 충분히 익혀 먹어야 하며 피부에 상처가 있는 사람은 바닷물에 접촉하지 않고, 어패류 관리 및 조리시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어패류는 -5도 이하로 저온보관하고 어패류는 85도 이상 가열처리하며, 증기로 익히는 경우에는 9분 이상 더 요리해야 한다. 어패류를 조리 시 해수를 사용하지 말고 흐르는 수돗물에 깨끗이 씻어야 하고 어패류를 요리한 도마, 칼 등은 반드시 소독 후 사용하고 어패류를 다룰 때 장갑을 착용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부안군 보건소는 지난 4월부터 군내 7개 지역(계화, 격포, 모항, 궁항, 작당, 곰소, 왕포)의 해수 등을 채취하여 비브리오패혈증균 검사를 하였으며 10월말까지 지속적으로 추진, 보건소 감 염병관리팀 관계자는 비브리오패혈증 의심증상이 발생하면 즉시 병원진료를 받을 것을 당부했다. /부안=이옥수기자

부안읍 이장협의회, 부안종합사회복지관서 사랑의 팔곤 나눔 행사

부안읍 이장 협의회(회장 김재희)가 어르신과 장애우를 대상으로 팔곤을 나누어 주는 사랑의 팔곤 나눔 행사가 지난 15일 부안종합사회복지관에서 어려운 사회 취약계층 및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펼쳐졌다. 평소엔 부안을 사랑하는 마음이 각별한 부안읍 이장 협의회(회장 김재희)는 지속적인 환경정화활동 및 소외계층 나눔 행사 등에 적극 동참하

는 등 부안발전에 적극 기여하고 있다. 김재희 이장협의회장은 "팔곤 나눔 행사가 부안읍에 거주하는 모든 주민들이 행복을 나눠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전하면서 앞으로 사랑의 팔곤 나눔 행사와 같은 사회공헌활동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부안=이옥수기자

대한민국 홍삼 특구 진안고원  
세계주류품평회 금상  
眞心 홍삼주